

문화광장



이 나 연
독립큐레이터·미술평론가

너의 바다 나의 바다

천지불인(天地不仁)이라든가? 하늘과 땅은 아질지 않고, 자연 그대로 행할 뿐이라는 뜻이다. 노자가 한 말이라는 데, 천지는 자비가 없어 만물을 질감 아지처럼 여기는 말에서 유래한다. 천지자연의 일부인 바다 역시 자비를 모른다. 자비로움이 없으므로 매사공평하다. 그 안에서 사람은 질감아지다. 파도에 갇힌 적이 있다.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파도에 포획 당했다. 유년기의 어느 늦은 오후였는데, 해가 누엣누엣 저물어가고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본격적인 물놀

이를 마치고 바닷가에서 물에 발을 담갔다 뾰다, 파도를 쫓아갔다 피했다가를 반복하며 여운을 즐기고 있었다. 순간이었다. 너울이 덮쳤다. 순식간에 거도(巨濤)의 공격을 받고, 목직한 모랫돌 속에 갇혀 정신이 멍해져서 가 싶었는데, 다시 하늘이 보였다. 온몸이 모래바닥이 됐다. 잠시라도 균형을 잃고 파도에 휩쓸려갔다면, 무력한 질감아지 같은 몸뚱이가 어디까지 쓸려갔을지는 모를 일이다. 바다의 무자비한 경고를 받고도, 그를 무시위하거나 싫어하게 되진 않았다. 결코 한 번의 공포체험을 핑계로 바다가 주는 수만 가지 즐거움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튜브를 타고 파랑을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던 여유로움, 맨발에 사각거리는 모래의 감촉, 먼 바다 위에 부서지는 햇빛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 그 햇빛이 다시 나의 살갓도 따끈하게 데워주는 느낌,

까르르거리는 주변의 즐거운 소음이 아득하게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지는 것을 듣는 일까지. 모두 좋은 일들뿐이었다. 모래사장을 가진 제주의 맑은 바다는 나와 가족의 수영장이었고, 돌부리를 가진 짙은 바다는 낚시터였다. 언제든지 그 곳에 가기만 하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 회원권도 필요 없고, 복장 규정도 없고, 제한 시간도 없었다. 자연은 무자비할 정도로 공평했으니까. 가장 덜 잊히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작가라고 확실하는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하길,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해서,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때는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잠한다고 했다. 내게 제주의 바다와 관련한 기억은 언제나 진정제였다. 비릿한 바닷내음과 짙을 가능할 수 없는 너른 수평선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된다. 독약이 될 때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공간에 몸이 묶였는데 한없이 그곳이 그리워질 때뿐이다. 전국이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를 듣는다. 이미지공유 플랫폼엔 친구들과 이 바다 저 바다를 다니며 수영과 서핑, 스노클링을 즐기는 사진들이 올라온다. 여름을 제대로 즐기는 이들 모두 행복해 보인다. 나는 비록 집에서 이십년 전의 바다를 상상하며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을 동시에 쬐면서 원고를 쓰고 있지만,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싶다. 사진만 봐도 바다의 짙내와 미지근한 물, 따가운 태양을 기억 속에서 꺼내와 즐길 수 있다. 바다에 대한 글을 쓰기만 해도 코 끝에 바다 냄새가 스쳐가고 귀에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기분이다. 멀리 책상 위 일기가 끝나고 나면 나도 선풍기와 에어컨을 끄고 오랜만에 바다로 물놀이를 가볼까?

열린마당

청소년 기초질서 지키기 자원봉사를 마치며



장 수 미
제주동중학교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지난 7월22일부터 8월2일까지 총 10일간 '미래창창 청소년 기초질서 지키기 체험하GO! 실천하GO!'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했던 친구들은 20여명 정도인데,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각자의 맡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도로변에 불법 주차차량에 올바른 주차 문화에 대한 안내문을 나눠 주고, 인도나 횡단보도 위에 주차된 차량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팸플릿을 배부했습니다. 또한 삼양해수욕장 주변의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릴까?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은 뭐지? 우리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있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청소년 자원 봉사활동이라 다소 어색했지만 우리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구성원 서로서로 잘 지키자고 만든 약속인 '기초질서'에 대해 학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각 분야에 대한 체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민주적인 가치를 생각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이웃과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갖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창 청소년 기초질서 지키기 체험하GO! 실천하GO!'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색다른 경험을 한 것에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비록 자원봉사 시간을 목적으로 참여했으나 결코 이런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다른 청소년들도 이런 기쁨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제2공항 TV토론회 일정 '민감'

"확정 내용 전혀 없다" 발표

○...제주도가 제2공항 TV토론회와 관련 일정, 패널선정, 토론회내용 등 실무협의과정에서 도출되는 내용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

제주도는 지난 1일 공개 TV토론회에 따른 1차 실무협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5일 공식 발표.

이어 "해당 방송사들과 편성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져야만 정확한 세부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공식 브리핑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상윤기자

일본뇌염 예방 활동 강화

○...지난 7월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제주시 서부보건소가 일본뇌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눈길.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릴 경우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

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예방접종과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모기 성충과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생후 12개월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 고대모기자

서귀포시, 태풍 대비 만전

○...서귀포시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6일쯤 간접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5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

회의에서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물·입간판·공사장 자재 결박과 물놀이지역 이용제한, 저지대·해안면 예찰 강화, 우수관 집수구 정비 등을 강조.

회의를 주재한 양운경 시장은 "프란시스코가 소형 태풍이긴 하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이젠 태풍과 집중호우 때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은 태풍 진로 상황을 전파해 달라"고 주문. 이태윤기자

사설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 선제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제주에도 불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한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할 경우 제주 1차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돌입해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5일 도청에서 도내 수출기업과 수출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제주도는 일본과의 무역전쟁 악화에 따른 수출 애로사항과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일본시장 수출 및 대체시장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에 제주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도내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입장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비중은 꽤 높기 때문입니다.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면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합니다. 홍콩에 이어 두 번째 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제주에도 불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한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할 경우 제주 1차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돌입해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5일 도청에서 도내 수출기업과 수출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제주도는 일본과의 무역전쟁 악화에 따른 수출 애로사항과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일본시장 수출 및 대체시장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에 제주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도내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입장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비중은 꽤 높기 때문입니다.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을 보면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제주도 정기인사 도약과 쇄신의 기회로

제주특별자치도가 682명 규모의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5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정기인사를 업무성과 중심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도정시책 추진력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도민행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성 제고 ▷일 잘하는 조직 육성이라는 인사의 기조도 공표했습니다. 특히 민선7기 1주년을 맞아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에 힘을 싣도록 한 것은 물론이며 여성 국장급 승진과 총무팀장, 더 큰내일센터 등 주요 보직에 여성 공무원을 배치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불친절하고 태만한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인사를 시행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도정 운영을 위한 공직자상 확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연공서열 중심의 근검 제도를 탈피하고 조직 내 합

리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원칙표명과 함께 그동안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인사결과를 놓고 도청 안팎에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잘했다"는 인사평은 역대 어느 도청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번 인사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은 다음번 인사에서는 개선하고,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인사는 반복되지 말아야하고, 후폭풍이 있는 인사는 가급적 없도록 해야 합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있는 인사는 공무원들만의 몫이 아니라 인사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인사를 시행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도정 운영을 위한 공직자상 확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연공서열 중심의 근검 제도를 탈피하고 조직 내 합

부고
양상훈(이오싱) 아버지 제주양공창상(오한·향년 89세)께서 서기 2019년 8월 4일 오전 6시경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선종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8월 6일(화)
발인일시 및 장례미사
2019년 8월 7일(수) 오전 10시
발인장소: 전주교 동문성당(064-757-8806)
장 지: 제주시 황사평 공원묘지

합병 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매스아시아(이하 "갑")와 주식회사 알파카(이하 "을")는 각 이사회에서 상반에서 규정하는 합병절차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병당사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5일
합병법인 갑 주식회사 매스아시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40, 지하 1층 삼성동 빌딩B로모
대표이사 정 수 영
피합병법인 을 주식회사 알파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 2길 55, 5동 애월미니스퀘어
대표이사 임 현 규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골 미곡식물의약원 S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887, 010-5755-8887, 상담 010-28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도정 소식
폭염 발생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우려되는 분들의 인부를 살펴보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평화 넥서스:평화를 이어가는 세계시민' 감사 파견 프로그램 안내
목적
- 제주도민을 평화를 이어가는 세계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평화 관련 교육의뢰와 의뢰기관에 평화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글로벌 평화 실천 인재 육성 및 평화의 섬 홍보
신청기간: 2019. 7월부터 12월까지(선착순 접수 후 마감)
신청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계시민(17개 분야), 평화일반(9개 분야)
교육대상
- 제주도 내외 정규 교육기관(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 제주도 내 정부 공공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NGO 등
신청방법
- 제주국제연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후 이메일(cifaljeju.nexus@gmail.com) 접수
운영방법
- 특강신청에 따라 평화 넥서스 프로그램에 적합한 강사들을 확보 후, 감사와 요청 기관의 일정 조정 후 평화관련 전문 강사파견
문의: 제주국제연수센터 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064-735-6585)

제주시정 소식
제4회 제주음식박람회 음식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2019. 7. 12. (금) ~ 8. 9. (금) 28일간
대회기간: 2019. 10. 4. (금) ~ 10. 6. (일)
대회구성: 9개분야 · 13개 부문
- 향토음식, 외식상품, 제주떡·제과제빵, 건강음식, 한식요리, 대학살, 고교생, 제주떡
제출서류: 서약서, 참가신청서, 요리설명서(레시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신분증(학생증/사원1부, 통장사본 1부)
제출처: 제주시청 위생관리과(hongs08@korea.kr)
문의: 제주시 위생관리과(T. 728-2621-2)
자동차 감축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모집
신청기간: 2019. 7. 17. (수) ~ 8. 30. (금)
신청자격: 시민 누구나
신청 및 제안방법
- 온라인: 제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61672:자동차 감축을 위한 정책 제안) 게시판 '메인화면 제주시는 지금 링크메너 통하여 입장'
- 이메일: songty@korea.kr
- 방문·우편: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2동) 제주시청 기획예산과 제안담당자
- 제안분야: 자동차 감축을 위한 정책 제안
문의: 제주시 기획예산과(T. 728-2214)
동물등록 사진신고 기간 운영, 서둘러 등록하세요
기간: 2019. 7. 1. (월) ~ 8. 30. (금)
등록대상: 개(의무), 고양이(등록희망)
등록유형: 내장형(마이크로칩), 외장형(목걸이형), 인식표
* 고양이는 내장형만 사용: 고양이 행동특성상 분실·훼손 가능성 높음
* 등록수수료: 무료
* 등록방법: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업체(제주시 내 39개소 동물병원 등)
*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이상) 60만원
문의: 제주시 축산과(T. 728-3812)
제주시아트센터 기획초청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내한 제주 공연)
공연명: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제주공연
일시/장소: 2019. 8. 22. (목) 오후 7시30분 / 제주시아트센터
주요출연: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 교향악, 김수경 등
관람료: R석 2만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 7세이상
할인: 50%(제주4·3유족, 노인, 다자녀가족 등), 30%(문화사랑회원, 단체 등)
문의: 제주시 아트센터(T. 728-15009)